

홈 > 읽을거리 > 브랜드 탐구 > 기술과 전통의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는 새싹 – 오디오 헝가리 – 퀄리톤 읽을거리 브랜드 탐구

기술과 전통의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는 새싹 - 오디오 헝가리 - 퀼리톤

By AnalogStyle - 2017년 4월 24일 디지털 세상에서도 아날로그는 사라지지 않는다. LP와 턴테이블이 아직도 오디오 시장에 남아 있는 것은 이제

는 더이상 '잔존'의 차원으로 볼 수 없다. 특히 2010년대 들어 미국과 영국에서 LP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영국에서 30만장, 미국에서 100만장을 돌파했다는 LP 판매량 집계는 얼핏 작아 보이지만, 음반 시장에서 아직도 주류를 이루는 중고음반 판매량은 집계에서 빠진 것이므로 말그대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런 추세를 반연하듯, 영국에서는 2014년경 LP 앨범 차트를 다시 부활시켰다. 40위까지의 차트에는 레드 제플린, 데이빗 보위, 밥 딜런 등, 한 시대 이전의 명반들은 물론이고, 요즘 연주자들의 신반까 지도 랭크되고 있다. 오디오 기기도 마찬가지 추세다. 디지털은 여전히 강세이지만, 진공관 앰프들이 점점 더 시장에서 늘어나는 것 처럼 보인다. 특히 중국에서 저가품을 엄청나게 만들어 내면서 진공관 앰프의 진입 문턱이 무척 낮아졌다. 사용

되는 진공관들도 다양해져서 3극관부터 5극관까지 싱글앰프나 푸시풀 앰프까지 선택의 폭도 무척 넓어졌다. 처음 디지털이 세상을 장악하기 시작할 때, 생산자나 사용자의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해서, 또는 편리하지 못 해서 천대받았던 다양한 아날로그 제품들이 시장에서 반격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는 - 지극히 감성적인 사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편리성이나 효율성보다는 듣는 이의 감성을 자극하는 개성이나 매 력이 더욱 중요할 테고, 아날로그는 바로 그점을 충족해주는 힘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진공관 앰프는 최근에는 전술한 중국의 위세가 만만치 않지만, 몇몇 열혈 애호가들이 주도하는 메이커들은 특 히 동유럽에 널리 퍼져 있다. 대체적으로 규모가 작으므로 우리에게까지 알려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대기업이나 서방의 투자를 받아 자신의 브랜드를 세계로 알리거나 OEM 납품을 하면서 크게 성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오늘 소개하는 오디오 헝가리는 브랜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헝가리의 진공관 앰프 메이커다. 우

도 의외로 소개될 기회가 많지 않았다. 오디오 헝가리의 역사는 따지고 들면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요한 산업이었던 라디오 분야에서 부품을 생산하고 소매와 서비스를 담당하던 작은 국립 회사가 그 기원이다. 1960년대에는 EAG(ElectroAcoustic Gmbh.)라는 이름으로 음향 산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는데, 독일 AEG의 압력에 따라 BEAG(Budapest EAG)라는 이름으로 바꿔야 했다고. 이 회사에서는 주로 스튜디오용 장비와 방송 장비, PA 장비에 주력했고 커다란 성공을 거두게 된다. 이후 1990년대까지 프로 음향 분야에서 음향 관련 연구 개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시절이었고, 1990년대부터는 BEAG의 일부 공장이 UNIVOX사에 넘어갔고 프로

리에게는 주로 체코 쪽의 진공관 메이커들이 알려져 있는데, 헝가리의 오디오 시장은 체코와 비슷한 환경임에

용 오디오 생산을 계속하게 된다.



함으로써 전작에 대한 경의를 담고 있으며, 기존 제품과는 다른 독창적이고 참신한 회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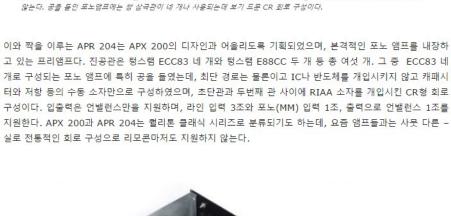
현재 오디오 헝가리 - 퀄리톤의 제품 라인업은 여섯 종류이다. 사실상의 데뷔작 APX200 파워 앰프는 이전 BEAG 시절 APX100를 프로용에서 가정용으로 전환하면서 모노블록을 스테레오 구성으로 바꾸고, 현대 저임 피던스 스피커에의 대응력을 강화시킨 모델이다. 전형적인 빈티지 디자인, 출력관은 새시 속에 숨어 보이지 않

으며 전면 패널 중앙에 바이어스 미터를 달아 고전적인 멋을 가미시켰다. 출력관으로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

은 6P45S를 사용하는데 EL509와 특성이 비슷한 5극관이라고 한다. 6P45S는 채널당 싱글 푸시풀 구성으로 총 4개를 사용하며, 이를 통해 채널당 100W라는 강력한 출력을 끌어 낸다. 주파수 특성은 최대 출력 및 3dB 밴드에서 15Hz~100kHz라고 하니 상당한 광대역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전고조파 왜율은 역시 최대 출력시 1%이고 신호대 잡음비는 101dB을 넘으니 스펙상으로는 무척 훌륭한 성능 이다. 언밸런스 입력 한조와 4옴 8옴에 해당하는 스피커 단자를 갖고 있는 심플한 단자들. 전면에 바이어스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를 갖고 있는 것이 특이한 점이며, 이외에 볼륨을 조절할 수 있어서 소스 직결도 가능하 다. 한편 보이지 않는 기능도 뛰어나서, 진공관 보호 회로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진공관의 수명 을 크게 연장시킬 수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슬로우 스타트 회로로 돌발 전류를 억제하며, 아노드

전압 지연 회로를 장착하여 아노드에 급격한 전압 상승을 방지하고 있다.

APR 204는 현재 오디오 헝가리 - 퀄리톤에서 생산하는 유일한 프리앰프다. 철저하게 전통적인 앰프로서 리모콘조차 지원하지





릴레이를 사용하면서도 셀렉터를 단자 가까이 둔 이유는 포노를 선택했을 때 최단 배선을 실현하기 위한 것. 퀄리톤의 제작진들은

다음은 퀄리톤 A50i 인티앰프를 살펴보자. 퀄리톤 클래식 시리즈가 전통을 기반으로 세부를 다듬은 제품이라 면, 퀄리톤 A50i는 지극히 현대적인 진공관 앰프라고 할 수 있겠다. 스테인레스 강판을 접어서 용접을 하고 광 을 낸 새시의 세련된 디자인은 심플함의 극치. 스테인레스 스틸은 용접이 어려우므로 이렇게 깔끔한 마무리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노브는 단 한 개로 소스 선택과 볼륨 조절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전원 스위치는 측

이 앰프가 '현대'를 모토로 했다는 것은 사용된 출력관이 통솔 KT-120이라는 사실로 여지없이 드러난다. 전단 은 네 개의 텅스램 E88CC와 두 개의 텅스램 ECC83으로 구성되며 KT120을 싱글 푸시풀로 구동하여 채널당 50W의 출력을 낸다. 현대의 진공관 앰프답게 고급스런 리모콘을 포함하며, 사용된 전원 트랜스가 EI형이 아닌 토로이덜 방식이라는 점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세 조의 언밸런스 입력과 함께 밸런스 입력을 한 조 지원하며 (다만 밸런스 단자가 일반적인 것이 아닌 미니 사이즈라는 것은 불만으로 남는다), 특히 한 조의 라인 레벨 출 력 단자를 두어 서브 우퍼나 멀티 앰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현대의 진공관 앰프다운 특성이라 할 수 있 겠다. 하지만 현대의 진공관 인티앰프들이 소스의 출력 전압이 높아지면서 파워 앰프 전단의 회로 구성을 쌍 삼 극관 두세 개로 간략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제대로 된 프리앰프의 회로와 파워 앰프를 결합시킨 점은 분

면 뒤쪽에 마련되어 있다.

명히 돋보이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쪽 옆면에 있다.



인티앰프 퀄리톤 A50i는 신관 KT120을 푸시풀 동작시켜 채널당 50W를 얻는다. 출력에 비해 앰프는 컴팩트하게 마무리되었는 데 광택을 낸 스테인레스 스틸 새시와 진공관의 배열이 아름답다. 노브는 하나로서 입력 선택과 볼륨을 조정하고 전원스위치는 뒤



KT88이나 EL34의 위세에 눌려 큰 빛을 보지는 못했지만 5881은 출력이 크지 않은 대신 음이 좋기로 유명한 진공관이다. A20i

는 5881을 푸시풀 구동하여 채널당 20W를 내는 작은 인티앰프다.

A20i의 출력단자는 8음에 맞춰져 있다. 출력 트랜스의 임피던스 매칭은 8음 단자에 8음, 4음 단자에 4음 스피커가 연결되어야 최대의 출력을 얻게 된다. 보통 출력 단자를 한 조만 제공하는 경우는 8음과 4음 스피커를 모두 고려하여 6음에 맞춰 놓는 경우가 많은데(신세시스 등), A20i는 고집스럽게 8음에 맞춰놓았다. 물론 스피커의 임피던스는 고정된 값이 아니므로 크게 신경 쓸 일만

마지막 두 기기는 포노앰프다. 전통에 기반한 브랜드인 만큼, 포노 앰프에 대한 집착이 남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고급기 퀄리톤 포노는 프리앰프 APR 204에 내장된 포노 앰프가 텅스램 ECC83 네 개로 포노 회로 를 구성하는데 반해, 추가로 텅스램 E88CC 두 개를 더 사용하고 있으며, APR 204와 마찬가지로 증폭단 사이

기본적으로 MM에 대응하는데, 입력 단자부가 모듈식이므로 옵션인 MC형 모듈로 교체할 수 있다. 턴테이블을 다수 사용하거나, 다수의 톤암을 사용하는 애호가들도 많은데, 셀렉터를 달아서 MM과 MC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에 삽입된 CR 소자로 RIAA 커브를 만들어내는 CR 회로를 사용한다.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퀄리톤 포노는 쌍삼극관을 여섯 개나 사용하는 고급 포노앰프다. MM형을 지원하고, 옵션으로 MC형을 선택할 수 있다. 단자는 모 듈식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했는데, 크기를 조금 늘리더라도 스위치를 써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alita

MC 단자로 바꾸는 것은 네 개의 나사를 풀기만 하면 된다. MC 단자에는 승압 트랜스가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디오 헝가리에서는 퀄리톤 MC라는 승압 트랜스도 생산하고 있다. 퀄리톤 MC는 포노앰프가 아니라 승압 트랜스포머다. 다중 케이스로 철저하게 쉴드를 시켰으며 은단자를 사용

하는 등 음질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고집스럽게 탭과 스위치을 사용하지 않으며, 게인도 24dB로 고정되어 있다. 오디오 헝가리 - 퀄리톤은 카트리지의 임피던스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포노 앰프를 생산하 는 쪽보다, 퀄리톤의 제품에 어울리는 포노 카트리지를 사용해서 최적의 음질을 얻으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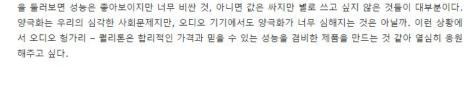
다. '유니버설' 타입이 '전용' 기기에 비해 좋은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니까.



철저한 월드를 취한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오디오 헝가리 - 퀄리톤 브랜드와 그들의 제품에 대해 살펴보았다. 퀄리톤의 역사는 자본의 기원부터 따지면 1940년대까지 올라가므로 무척 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정용 오디오의 생산만을 고려한다면 역사 가 매우 짧은 '새싹'과도 같은 회사라 할 수 있겠다. 다만, 오디오 헝가리 - 퀄리톤 브랜드 이전에 BEAG나 UNIVOX 시절을 거치면서 헝가리의 업계에 축적된 전반적인 음향 관련 기술이나 측정 기술, 생산 기술의 수혜 를 입은 것은 확실하므로 만만히 볼 신생 브랜드도 아닐 것 같다. 말하자면 기술과 전통의 비옥한 토양에서 자 라오르는 새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문화에 밀려서 전통적인 오디오 시장이 위축되고 매력적인 제품들이 점점 더 귀해지는 요즘이다. 시장

퀄리톤 MC의 내부 모습. 코일은 펌알로이 코어를 갖고 있으며, 주변에 베이클라이트를 감아 코어를 고정하는 독특한 형상이다.

양극화는 우리의 심각한 사회문제지만, 오디오 기기에서도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상황에 서 오디오 헝가리 - 퀄리톤은 합리적인 가격과 믿을 수 있는 성능을 겸비한 제품을 만드는 것 같아 열심히 응원 해주고 싶다.



by: http://analogstyle.co.kr/